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22호 양묘장이 정말 요란하다고, 하나의 건축군이 형성되었다고,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면서 한생토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도, 습도, 해비침도, 린산가스함량, 동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도록 양묘장에 통합조종체제를 훌륭히 구축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단일한 종류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양묘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모들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적인 양묘장에 통합조종체제를 구축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의 혁명적인 지식인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나무모들의 생육조건을 최적화할수 있게 모목온실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을뿐만아니라 온실작업의 자동화,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나무모를 한해에 두번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원형삼목장, 온실에서 키워낸 나무모들을 야외에서 적응시키는 재배장, 용기나무모 재배구들에 현대적인 관수설비와 해가림장치를 설치했는데 뿐만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종자선별로부터 파종, 나무모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을 고도로 자동화, 호통선화하였으며 기질생산공정과 나무모저장시설들도 그르하게 갖추어 놓았다고 하시였다.

나라의 산림과학을 선도할수 있게 과학기술연구기지과 과학기술보급거점도 잘 꾸려놓았으며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관리청사와 문화회관, 종합편의시설, 종업원살림집들도 잘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줄수 있게 건설된 122호양묘장의 연간 생산량은 2,000여만 그루라고, 모든

도들에게도 이 양묘장과 같은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면 한해에 2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도당위원장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어 양묘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묘장을 바라보시며 규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양묘장이 아니라 공원화된 하나의 거리같다고, 별세상에 온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